



문인으로 제2의 삶 시작

- 맹광호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

가톨릭의대 예방의학 교수이자 대한결핵협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는 맹광호 교수가 최근 창립된 한국 의사수필가협회 초대 회장직을 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의사와 수필, 잘 어울리지 않는 듯 어울리는 조합이다.

지난 3월, 40년간 몸담았던 교직에서 퇴임한 후,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맹광호 전 가톨릭의대 교수를 만났다. 글_박연숙(본지기자)

퇴임, 새로운 인생의 시작

맹광호 교수는 지난 3월, 40년간 몸담았던 교직을 떠났다. 반평생을 달고 살았던 이름표를 떼어내려면 후유증도 클 것 같다.

“물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직에 있으면서도 대외활동을 많이 해왔던 탓에 대학에 재직할 때는 남들보다 더 바빴던 셈이지요. 그 점에서 보면 지금이 차라리 맘이 편하죠.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맹 교수가 퇴직 후에 하고 싶은 일로 나열한 것들 중 첫 번째는 역시 글을 쓰는 것이다. 최근 ‘한국수필가협회’ 초대회장을 맡은 것도 그의 오랜 꿈인 글을 쓰는 것과 맞물려 있다. 물론 조용히 혼자서 글을 쓸 수도 있지만, 협회를 통해서 기여하고 싶은 게 있단다.

“의사들 중에 의외로 글을 쓰는 것이 취미인 분들이 많아요. 수필로 문단에 정식으로 등단한 분만해도 30명이 넘는데, 그분들과 함께 협회를 만들게 되었지요. 요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많잖아요. 문학의 부드러움으로 국민과 의료계와의 간극을 좁히고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런 불신 대부분은 의료계와 사회의 소통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환자는 아파서 병원을 찾고, 의사는 환자가 있어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처럼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최근 환자들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은 우려할 만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현실에는 사회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의사들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오해가 의료계 전체로 이어지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글만큼 소통하는 데 좋은 도구가 없다고 봐요. 협회 활동을 통해 글쓰기에 대한 꿈을 품은 의사들의 등단을 도와주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예요.”

예방의학을 선택한 이유

맹 교수는 예방의학을 전공했다. 예나 지금이나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선택하는 임상 의사의 꿈을 접고 예방의학을 전공하기로 했을 때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것은 뻔한 일이다.

“우선 가족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60년대 의과대학을 다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저도 입주 가정교사 생활 등으로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는 임상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예방의학을 전공하겠다는 제 생각에 가족들이 쉽게 동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몇 개 임상 과에서는 제가 그 과를 전공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기도 했구요.”

그러나 대학을 졸업할 무렵, 맹 교수는 이미 선진국에서 만성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점에 주목하게 됐다. 그게 우리나라의 20~30년 후의 모습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세균성질환보다는 만성질환이 점점 늘어나겠구나 싶어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담당하는 예방의학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만약 임상이 되었다면 아마도 정신과 의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단다.

순수함과 열정으로 살던 20대의 맹 교수에게 당시로서는 ‘돈’이나 ‘물질’ 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전공과목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다고 한다. 맹 교수가 그것은 60대 후반에 들어선 지금에도 변함없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가치다. 관심사가 그렇다보니 마음 한 켠에 인문학에 대한 열정을 버릴 수 없었다고 한다. 그것을 맹 교수는 ‘그리움’ 이라고 표현했다.

금연운동, 평생 할 것

예방의학을 전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 금연운동이다. 예방의학 중에서도 질병 역학을 전공한 맹 교수에게 있어서 암을 포함한 거의 모든 만성질환 발생과 관련이 깊은 흡연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특히 청소년의 흡연 문제에 관심이 많다.

“지금은 보건복지가족부에 통합이 된,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 활동을 8년간 했어요. 예방의학을 한 사람으로서 중독성이 강한 담배에 청소년들이 멋모르고 빠져드는 게 너무 안타까웠지요. 흡연예방교육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약물 예방에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해 왔는데 이 일은 할 수만 있으면 앞으로도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퇴직 후 늘어난 대외활동으로 더 바빠졌다는 맹 교수가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꼽은 것은 뜻밖에도 ‘공부’였다. 평생 공부하고 연구하는 삶을 살아왔으니, 이제 좀 벗어나고 싶지 않을까?

“공부처럼 쉬우면서 효용가치가 높은 게 없어요. 인문학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요. 특히 동서양 사상과 철학. 그리고 어학공부도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 되긴 쉽지 않죠. 공부를 통해 얻은 것으로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지요.”

객관적으로는 초로에 접어든 나이, 하지만 열정만큼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의 그것이었다.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것은 꿈을 꾀다는 것이고, 꿈을 꾀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은 전파력이 강하다.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이룬 듯 보이는 맹광호 교수의 제2의 인생설계가, 꿈 이야기를 듣는 동안 즐거웠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

